

손흥민, 눈앞에서 놓친 '빅이어'



손흥민(토트넘)의 생애 첫 유럽 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도전기는 실패로 막을 내렸다. 공격진의 선봉으로 고군분투했지만 결과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토트넘은 2일 오전 4시(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0-2로 패했다.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프로 축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높

은 수준의 경기다. 꿈의 무대로 불리는 이유다. 손흥민은 2009년과 2011년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박지성에 이어 한국인 선수로는 8년 만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왼쪽 측면에서 선 손흥민은 빠른 발을 활용한 돌파로 리버풀 수비진을 괴롭혔다. 이른 시간 선제골을 얻은 리버풀이 수비벽을 촘촘히 쌓으면서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드러

리버풀에 막혀 챔스리그 준우승 한국인 선수로 8년만에 선발 출전

또 두드러졌다. 손흥민의 움직임은 후반 들어 더욱 가벼워졌다. 중앙으로 자리를 옮긴 손흥민은 패스가 원활하지 않자 2선으로 내려가 직접 공을 받기도 했다.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된 후반 중반 이후에는 더욱 도드라졌다. 후반 36분 시도한 회심의 오른발 슈팅은 실에 빠진 토트넘팬들에게 한줄기 빛으로 다가왔다. 이날 경기 토트넘의 가장 위협적인 슈팅이었다. 리버풀 쪽으로 승부가 기운 후반 추가시간에도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고 만회골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토트넘의 편이 아니었다. 리버풀은 전반 2분 만에 얻어낸 행운의 페널티킥으로 리드를 잡았다. 무사 시소코의 핸드볼 반칙은 토트넘의 구상을 완전히 뒤엎리게 했다. 한 골을 등에 업은 리버풀은 강력한 압박을 펼친 끝에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다. 갈망했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어느 때보다 화려한 한 해를 보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 많았지만 총 20골을 넣었다. 토트넘이 주포 해리 케인 없이도 챔피언스리그 결승,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위라는 호성적을 낸 것도 손흥민의 영향이 컸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는 1차전 선제골과 2차전 멀티골로 팀의 4강 진출을 지휘했다. 덕분에 팬들이 뽑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라는 영예를 안았다. 다시다녔던 시즌을 마친 손흥민은 4일 대표팀에 합류, 6일 A매치를 준비한다.

뉴시스

'이제 태극마크' 손흥민, 내일 합류 휴식 필요 일부 목소리에도 벤투 감독 확고

한국인 선수로는 박지성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은 손흥민(토트넘)이 6일 A매치 2연전을 위해 국가대표팀에 합류한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벌어진 리버풀(잉글랜드)과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이 0-2로 패해 웃지 못했다. 이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고 주장으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벤투호는 6일 호주와 이란을 상대로 평가전을 갖는다. 선수들은 3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인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일정으로 인해 하루 늦은 4일 합류한다. 손흥민의 타이틀을 고려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벤투 감독은 확고했다. 벤투 감독은 소집 명단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기에서는 손흥민을 불러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대표팀 감독으로서 최고의 선수를 선발하고자 하는 욕심은 당연한 것이다"며 "지난해 11월에도 그렇고 아시안컵 1·2차전에도 손흥민이 없었다. 대표팀 특성상 선발을 맞출 기간이 짧다. 그렇기에 이번엔 불러 휴식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에스타디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2018~19 UEFA 챔피언스리그 리버풀(잉글랜드)과의 결승전에 선발 출전해 드리블하고 있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며 문전했으나 득점하지 못했고 토트넘은 0-2로 패해 준우승했다.

손흥민은 A매치 79경기에서 24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3월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에서도 골맛을 봤다. 대표팀은 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호주,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을 상대한다.

뉴시스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 게이트볼대회 성료

사)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지회장 김종규)는 지난 달 30일 광양시 전천후구장에서 제23회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영·호남 12개 시·군 지회장은 물론 광양시 각계 인사

가 참석해 격려와 함께 출전한 선수 임원들에게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김종규(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지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인 게이트볼을 통해 승패를 떠나 영·호남의 화합과 친목을 다져가자"며 "혹시 우리 지역 간에 남아있는 작은



감정이 있다면 어른인 우리들이 앞장서서 잘 풀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는 24개 팀이 예선전부터 시군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경남 진주시 B팀과 전북 순창군 A팀이 결승전에 진출, 9대 11의 근소한 점수 차로 진주시

우승 팀인 경남 진주시 B팀이 김종규 광양시지회장 그리고 이현찬 진주시 지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치하하고 그동안 열정을 쏟아 훈련에 임한 댓가라며 "오늘의 이 영광을 선수들에게 돌린다"고 말했다. 김종규 광양시지회장은 입상 팀의 시상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산청군에서 다시 만나자"며 폐회사를 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강정호, 마이너리그서 3안타 작렬...타율 0.462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3안타를 몰아쳤다. 피츠버그 산하 트리플A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가 2일(한국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빅토리 필드에서 열린 트리플A 그뤼넬 스트라이퍼스(애틀랜타 산하)와의 경기에 유격수 겸 3번타자로 선발출전, 4타수 3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 재활 경기를 하고 있는 강정호는 트리플A 4경기에서 타율을 0.462로 끌어 올렸다. 강정호는 1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안타를 때려냈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강정호는 5회 2루타를 날렸으며, 7회 타석에서는 좌전안타를 만들어 냈다.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냈다. 경기는 인디애나폴리스가 6-7로 패했다.

뉴시스

류현진, '이달의 팀' 선발투수 선정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5월 최고의 선발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이달의 팀'을 발표했다. 양대리그를 통틀어 5월 한달간 가장 뛰어난 선수 11명을 선정했다. 선발투수 자리에는 류현진이 올랐다. 류현진은 지난 5월 6경기에 등판해 5승 무패 평균자책점 0.59라는 놀라운 성적을 남겼다. 날카로운 제구력을 앞세워 데뷔 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달의 팀 포수에는 캐리 산체스(뉴욕 양키스)가 선정됐고 조시 벨(피츠버그 파이리츠), 데릭 디트



리치(신시내티 레즈), 놀란 아레나도(콜로라도 로키스), 클레이버 토레스(양키스)가 내야진에 올랐고 에디 로사리오(미네소타 트윈스), 조지 스프링어(휴스턴 애스트로스), 코디 벨린저(다저스)가 외야진을 구축했다. 오스틴 메도우스(탬파베이 레이스)는 지명타자, 아담 오타비노(양키스)는 마무리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굴,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